

【논문】

근대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역사적 성찰

—베를린 장벽의 붕괴 20주년과 그 함의를 찾아—*

최치원

【주제분류】 정치·사회철학, 역사철학

【주요어】 근대, 베를린장벽, 독일통일, 평화, 자유, 책임윤리, 동북아시아

【요약문】 근대는 홉즈봄(Eric Hobsbawm)의 개념을 빌어 표현하면 ‘극단의 시대’로 불릴 수 있다. 근대의 특징적 모습들은 파시즘의 도래, 완벽한 파괴와 살육을 보장해 주는 기계들의 혁신, 폭력과 테러의 정치 및 문화의 진화, 끊임없는 인권 유린과 기본 권리의 침해, 무엇보다도 양차 세계 대전에서 절정에 이른 전쟁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이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동독 지역의 무혈의 혁명과 구소련의 평화로운 변혁을 가져왔던 출발점이었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근대를 혼돈과 오류로 가득한 프로젝트로 이해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미완의’ 프로젝트이다. 그것이 미완인 이유는 아마도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날 유럽은 수많은 혼돈과 오류 뒤에 유럽연합이라는 평화로운 세계시민적

*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와 독일 자유 베를린 대학교 공동 주최로 ‘베를린장벽 붕괴 20년과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2009년 9월 10일-11일 사이에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에 대해 비판과 유익한 논평을 해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내지 못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통일이 가져온 부정적 귀결 보다는 근대의 맥락에서 그것의 긍정적 의미를 살리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공동체로 새로 태어났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근대라는 프로젝트가 여전히 완성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오늘날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20년 전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의 의미를 다시금 고찰하는 것은 ‘역사의 종언’으로 대변되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상실의 시대에 맞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평화’, ‘윤리’ 그리고 ‘자유’의 문제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 봄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로서 세계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북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틀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Why, then, did the century end, not with a celebration of this unparalleled and marvellous progress, but in a mood of uneasiness?”
 - “Not only because it was without doubt the most murderous century of which we have record, both by the scale, frequency and length [...] but also by the unparalleled scale of human catastrophes it produced [...]”¹⁾

“Der Anspruch der SED, “objektive gesellschaftliche Interessen” zu verwirklichen und die Gesellschaft zur Assoziation Gleicher zu führen, war unter den Bedingungen der diktatorischen Anwendung ihrer Macht weder realisierbar noch emanzipatorisch.”²⁾

1) Eric Hobsbawm,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Abacus: London, 1997(1994), 13쪽

2) “‘사회의 객관적 이익’을 실현시키고, 사회를 평등한 자들의 결사체로 이끌어야 한다는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요구는 독재권력을 행사하는 조건 하에서 실현될 수도 없었고 해방적이지도 못했다.” “Sozialismus entsteht in und aus der Gesellschaft - Erklärung des Parteivorstandes der PDS zum 50. Jahrestag des 17. Juni 1953” (26. Mai 2003), *Handout zur Geschichte: Aus Dokumenten der Linkspartei. PDS*, 7쪽.
 =http://die-linke.de/fileadmin/download/geschichte/090312_handreichung_geschichte.pdf.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그 이후의 상황은 독일에서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는 역사적 조건이 되었다. 독일은 4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통제 하의 서독 지역과 소련 통제하의 동독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베를린도 이러한 운명을 따랐다. 운명은 민족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삶을 두 개의 길로 들어서게 강요했다. 독일인들의 정치적 삶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각각 자신의 생존의 절대적 근거로 내세웠던 경쟁운동의 법칙과 계급운동의 법칙에 맞추어져 재편성되었다. 서독 지역은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 수상 하에서 그리고 동독 지역은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 하에서 각각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과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을 선포하였다. 이후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독일은 두 개로 쪼개져 서로 다른 역사 과정을 밟아가면서 반목하고 갈등하였다. 이러한 반목과 갈등이 구체화된 것이 동독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1950년대 초반의 국경봉쇄정책이었다. 그것은 1961년의 베를린 장벽 설치 때 정점에 이르렀다. 장벽은 동독 정부에 따르면 서독과의 임시 분계선 정책의 한 표현물이었다. 장벽을 설치한 후에 동독 정부는 “우리는 통일되기 이전에 분리되어야만 한다”³⁾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은 곧 동독 정부에 의해 확정된 국경으로 받아들여졌고, 반파쇼 보호벽(antifaschistischer Schutzwall)으로 선전되었다. 동독은 이러한 논리 전개에 근거를 전쟁 전의 모든 나치주의자들이 서독으로 도주해서 그곳에서 서구 연합군의 도움으로 신파쇼 국가를 만들고 있다는 데서 찾았다. 장벽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서독의 파시스트 스파이들이 동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 역사 속에서 장벽은 국가가 마음 놓고 시민의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빼앗고, 시민에 대한 억압이 정당하다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일종의 방어막이었다.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했

3) Sigrid Meuschel, *Legitimation und Herrschaft der DDR*, Suhrkamp: Frankfurt am Main. 3. Aufl., 1993, 273쪽.

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나 장벽이 건설되면서 장벽을 “제거(Überwindung)할 어떤 구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사실상 국가사회주의가 “종말에 가까워 있었다”⁴⁾는 것을 의미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내적 통일(innere Einheit)의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 상태에 있다.⁵⁾ 장벽의 붕괴는 유럽적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적 합리성 모델에 따르는 ‘homo sovieticus’로부터 시장경제적 합리성 모델에 따르는 ‘homo oeconomicus’로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도전⁶⁾을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도전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은 ‘homo oeconomicus’의 이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다수의 의식 속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미래의 국가에 대한 이상(이것은 시장경제와 휴머니즘 그리고 사회주의를 결합시킨 정치공동체에 대한 여망으로 표현된다⁷⁾)은 시장경제의 독주가 현실화되면

4) “Die PDS hat sich vom Stalinismus der SED unwiderruflich befreit – Erklärung des Parteivorstandes der PDS zum 13. August 2001”(13. Juli 2001), *Handout zur Geschichte: Aus Dokumenten der Linkspartei. PDS*, 5쪽.

=http://die-linke.de/fileadmin/download/geschichte/090312_handreichung_geschichte.pdf.

5) 독일 통일의 의미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한운석의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2009)가 있다. 한운석은 ‘독일 통일에 관해 기존에 이루어진 국내외의 논의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문화적-정신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적 체제’ 및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독일 통일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도 일어날지 모르는 “통일을 대재앙으로 맞지 않으려면 [...] 독일통일의 음지와 양지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운석,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 『역사와 담론』제 54집, 2009, 270쪽.

6) Bernhard Selinger, “Overcoming Internal Division: The German Experience and the Prospects for Kore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8-2.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7, 69쪽.

7) 이에 관해서는 Klaus Schroeder,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Verlag Ernst Vögel: München/ Stamsried, 2006, 492-493쪽 및 김누리, “동독의 귀환 - 통일이후의 독일의 가치관 변화”, 『피테연구』21집, 2008, 196쪽 참조.

서 그리고 이와 더불어 휴머니즘이 점차 빛을 잃어가는 가운데 사라져 버렸다. ‘진보는 죽은 것인가’라는 물음이 상징하듯 ‘보다 나은 미래’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진보’ 개념 자체 역시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다.⁸⁾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은 역사의 의미 상실과 무력감 그리고 희망의 상실을 가져왔다.⁹⁾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혁명의 이름으로 쟁취되었던 자유, 평등, 해방, 민주주의 등과 같은 이념들, 이들 이념들과 사회적 현실 간에 나타나는 모순에 대한 관념 그리고 기존의 질서에 대한 도전의 경험 등은 역사와 더 이상 의미있는 관계를 갖지 못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있었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반파시즘 동맹은 민주주의를 구해냈다. 이점에서 동맹 기간은 20세기 역사의 “중심점(hinge)”이었다.¹⁰⁾ 물론 양자가 결국에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자본주의의 전복을 목적으로 했던 10월 혁명과 그것의 결과인 공산주의가 자신의 적대자인 자본주의를 구해내고, 종전 후 자본주의로 하여금 계획 경제의 도입을 포함하는 체제 개혁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다시 적대자를 구해 냈다는 것은 “이상스런 세기의 아이러니들 중의 하나”¹¹⁾라고 볼 수 있다.

역사의 ‘중심점’이든 ‘아이러니’든 역사는 당시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해 생각을 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 이러한 이념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1990년대 말 유럽에서 중도좌파(left-of-center) 혹은 급진적 중도좌파(radical center)에 이념적

8) 막스 갈로 외, 『진보는 죽은 사상인가』, 홍세화 역, 서울: 당대, 1997, 52-53쪽.

9) 이러한 분위기는 예컨대 알하이트(Peter Alheit), 테페(Frank Deppe), 히르쉬(Joachim Hirsch), 앤더슨(Perry Anderson) 그리고 밀리반트(Ralph Miliband)와 같은 지식인들의 사유세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치원, “사회주의와 유럽의 근대와의 결합 시도”, 『시대의 논리』 제 5호, 2004, 68-70쪽 참조.

10) Hobsbawm, 앞의 책, 7쪽.

11) Hobsbawm, 위의 책, 7-8쪽.

기반을 제공하며 등장한 ‘제 3의 길’¹²⁾ 개념은 언뜻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펼쳐나가기 시작한 역사적 의미 상실감을 보상해 주는 대안인 듯이 받아들여졌다. 스웨덴에서 1980년대에 채택되었고, 다시 영국과 독일에서 1990년대 말에 정책으로 실현된 제 3의 길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에 순응하는 정책이념이었다.¹³⁾ 신자유주의는 마치 사슬 풀린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와도 같이 세계로 퍼져나가 중국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 비판적 사고와 체제에 대한 투쟁은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과거의 지식인들이 시대를 “명료하게 해석”해 주었다면, 지금의 지식인들은 “어둠에 어둠을 더할 뿐”¹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 사회가 18세기에 그 이전 사회로부터 투쟁을 통해 쟁취해서 자신의 토대로 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래까지

12)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98.

13)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와의 관계에 관해 여기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스웨덴, 독일 영국을 사례로) 경험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단지 본 논문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3의 길’의 핵심은 기존 사회민주주의의 여러 이념들 중에 핵심이 되는 것, 즉 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을 개혁 내지는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데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즉, ‘제3의 길’은 한편에서는 기회의 균등을 평등과 동일시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이 일방적 수혜라고 주장하는 우파(신자유주의도 포함)의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있다. ‘제3의 길’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중시하고 일하지 않고는 복지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이러한 생각은 사실 신자유주의의 기본 이념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와의 관계에서 ‘제3의 길’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은 최치원, “유럽의 신보수주의? - 그렇다면 샤토브리앙(Francois Rene Vicomte de Chateaubrinand)과 프랑스의 미네르마(Minerve francaise)는 이제 어디에?”, 『시대정신』 2호, 서울: 교양사회, 2003, 73쪽 이하 참조. 그 밖에 노대명, “제 3의 길’과 ‘세기말’ 좌파”, 『진보평론』 2호, 1999, 겨울; 채장수, “‘제3의 길’에서 평등의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2002, 36집 4호, 51쪽 이하; 신희영, “현대복지국가의 도전과 제 3의 길 -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2, 제 11권 2호, 46쪽 이하 참조.

14) 레지 드브레, 『지식인의 종말』, 강주언 역, 서울: 예문, 2002, 9쪽.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공유된 적이 있었던 “파시즘에 대한 짧지만 단호한 동맹을 가능케 했던 신념들과 가정들”, 무엇보다 “합리주의와 인문주의의 위기”¹⁵⁾를 반영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찾으려는 연구이다. 본 논문은 이에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는 시점(그것은 정확히 2009년이였다)에서 평화와 윤리 그리고 자유의 의미를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서 세계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북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틀을 찾아보고자 한다. 장벽의 붕괴 그리고 이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이념 및 실천적 행위와 이후의 사태 진행은 전적으로 유럽이라는 역사적 공간 속에서 전개된 것이지만, 국가간 그리고 민족간의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라는 포괄적인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독일 통일의 맥락에서 다룬 논의는 단행본과 논문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역사학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서술에 치중해 있거나 (정치학의 입장에서) 인물이나 권력관계 혹은 국제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해서 그것을 근대에 대한 포괄적인 철학적 성찰과 역사적 반성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 특정의 사건이 인류사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역사적 반성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기존연구가 소홀히 한 부분을 다룸으로써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문제의식을 던져줌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 Hobsbawm, 앞의 책, 11쪽.

II. 평화의 문제

홉즈봄은 철학자, 인류학자, 작가, 생태학자, 노벨수상자, 예술사가, 음악가, 역사가 등의 생각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1914년부터 1991년까지의 시기를 ‘극단의 시대(age of extremes)’로 개념화했다. 철학자 벌린(Isaiah Berlin)은 거의 80년이 채 안 되는 이 시기를 서구사에서 “가장 끔찍한” 세기로, 생태학자 듀몽(René Dumont)은 “대량학살과 전쟁”만 있었던 시기로,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 골딩(William Golding)은 인류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시기로 이해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오초아(Severo Ochoa)는 이 시기를 “과학의 진보”로 특징지었다. 음악가 메뉴힌(Yehudi Menuhin)에게 그것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을 준 시기이자 “모든 환상들과 이상들을 파괴해버린” 시기였으며, 역사가 발리아니(Leo Valiani)에게 “정의와 평등 같은 이상의 승리가 항상 덧없음을 입증해 준” 시기였다.¹⁶⁾

홉즈봄에 따르면 ‘극단의 시대’는 1914년 총체전의 시대의 개막으로부터 1991년 소비엣 시대의 종말까지의 역사과정이었다. 그는 이 시기를 새의 시각(bird's eye view)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고찰하고, ‘삼중의 역사 샌드위치’라고 독특하게 개념화하였다.¹⁷⁾ 삼중 샌드위치의 첫 수준은 1914년 시작된 재앙의 시대로부터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기간이 차지하고 있다.¹⁸⁾ 둘째 수준은 그 이후로부터 세계경제의 대약진시기라고 부를 수 있을 예외적인 경제성장을 특징으로 했던, 이와 더불어 전 세계가 사회변동으로 요동치던 1970년대 초까지의 25년에서 30년 정도의 황금기가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수준은 그 이후로부

16) Hobsbawm, 앞의 책, 1-2쪽.

17) Hobsbawm, 위의 책, 6쪽.

18) 1차 세계 대전은 문명의 파괴와 유럽의 세계의 중심성에 대한 확신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러한 중심성은 과학·지식·교육 분야에 있어 발전과 물질적/정신적 진보를 만들어 낸 유럽, 과학과 예술 그리고 정치·산업혁명의 탄생지인 유럽, 전 세계로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킨 유럽, 세계 대부분을 종속시킨 유럽, 그리고 세계정치 시스템을 성립시킨 유럽이라는 생각으로 표현된다. Hobsbawm, 위의 책, 6쪽 참조.

터 1991년 소비엣 시대의 종말까지의 시기이다.¹⁹⁾ 둘째 그리고 셋째 시기에 벌어진, 인류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커다란 특징들 중의 하나가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함께 시작된 냉전, 즉 독일을 두고 벌어진 미국과 소련 간의 쟁투였다. 이 쟁투는 전쟁을 통해 파괴된 세계를 다시 긴 파괴의 행렬로 끌고 들어갔다. 그것은 세계를 적과 동지의 진영으로 이분화시키고, 자신의 진영을 선의 수호자로 상대 진영을 악의 집단으로 절대화시키는 논리를 만들어 내었다. 이 논리는 전세계의 독재자들에게 대내적으로는 파괴와 억압을 정당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이러한 쟁투, 파괴, 억압의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다른 한편, 역사에서 더 이상 인간과 미래사회에 대한 의미있는 사변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역사의 종언’²⁰⁾ 테제가 등장하여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사로잡았다. 공산주의의 사망과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알리는 이 테제는 곧이어 나타난 ‘문명의 충돌’²¹⁾ 테제에 의해 완결되었다. ‘문명의 충돌’ 테제는 ‘역사의 종언’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이념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도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암암리에 주장하였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 논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의 이후에도 냉전을 주도했던 네오콘(Neo-con)들에 의

19) 역사상 “가장 커다랗고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변혁”을 기록했던 1970년대 초까지의 “세계경제의 대약진(the Great Leap Forward)”를 경험했던 세계는, 80년대를 거쳐 90년대로 들어가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경제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일관적 현상이 되었다. 공산주의 정권들의 붕괴는 정치적 불확실성, 불안정, 혼돈 그리고 내전을 만들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온 국제시스템을 파괴시켰다. Hobsbawm, 위의 책, 8-10쪽.

2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989. ‘역사의 종언’은 베를린 장벽 붕괴 몇 달 전에 출간되었다.

21)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1993, Vol. 72-3.

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들은 새로운 악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적을 찾아내야만 했다. 이들은 ‘역사의 종언’의 실현자와 ‘문명의 충돌’의 승자가 되기를 원했고, 세계를 다시 전쟁과 파괴 그리고 억압의 혼란에 빠트렸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역사의 종언’ 혹은 ‘문명의 충돌’과 연관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을까? (유보적으로 이해될 필요는 있지만) 장벽의 붕괴는 ‘극단의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니었는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국지적인 중소 규모의 전쟁들은 있었지만, 케넌(George F. Kennan)이 20세기의 원초적 재앙(the great seminal catastrophe of this century)으로 이해했던²²⁾, 그리고 (서구) 문명의 전면적 붕괴를 가져왔던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커다란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또한 1930년대의 경제공황에서 보듯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와해시킬 만큼 거대한 위기가 왔거나,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파시즘의 등장, 그리고 일본, 남미, 그리스, 포르투갈 및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등장한 유사 파시즘의 예에서 보듯 자유주의 헌정구조의 붕괴를 가져왔던 대규모의 정치적 격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의 시점에는 비록 짧은 순간이나마 1차 세계대전 중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했던 새로운 전쟁수행의 장비들과 기술들, 예컨대 기관총, 화염방사기, 탱크, 화학가스, 잠수함, 폭격기, 전투기등과 같은 것이 등장하여 파괴적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입증되었던, 인간이 기술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자기 파멸의 잠재력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 인류파괴의 에너지는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을 거쳐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을 거쳐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속되는 무기의 개발과 축적 속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증폭되어 왔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상과 파괴를 할 수 있으며 원인불명의 신체이상과 유전질환을 유발하는, 인

22) Aribert Reimann, “Der Erste Weltkrieg-Urkatastrophe oder Katalysato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d. 29/30, 2004, 30-38쪽.

간의 기존 상식을 뛰어 넘는 각종의 첨단 무기들, 예컨대 ‘고밀도 금속폭탄(DIME)’, ‘열화우라늄탄(Depleted Uranium Ammunition)’, ‘백린탄(White Phosphorus)’, ‘GBU-39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 등이 최근래에 있었던 전쟁에서 사용되었다. 파괴적 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련된 방식으로 커져갈 것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목적 없이 배회하며 커져온 이러한 파괴적 에너지가 인류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었음을 한 순간이나마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서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던 국가뿐만 아니라, 갈라진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 및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통합을 이루게 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베를린 장벽이 “동서독 민족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분단을 고착화”²³⁾시켰다면, 장벽의 붕괴는 유럽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갈등의 종결을 알리는 평화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려주었다.²⁴⁾

III. 윤리의 문제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과 국가를 떠나 어떻게 하면 전 인류가 평화로운 세계 혹은 지구촌(global village)을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세계에 두개의 논리가 공존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하나는 평화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전쟁과 억압을

23) 백경남,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서울: 강천, 1991, 277쪽.

24) 물론 이 이후에 세계가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 논문의 심사자 한 분께서 필자의 시각에 대해 “EU 성립의 의의를 너무 ‘보편적인’ 유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나 EU 등의 ‘중심부’ 세계의 성립은 비중심부 세계의 배제 그리고 이로 인한 간극과 대립 등을 이면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EU의 성립은 이 논문 필자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또 다른 ‘극단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여 주었다.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평화파괴적 현실 논리’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구조적 제약요인에 대립해 있는 ‘평화옹호적인 이상논리’이다.²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가져야할 윤리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²⁶⁾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는 이 글에서 ‘심정윤리(Gersinnungsethik)’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에 대한 명료한 문제의식을 전개시킨다. 그에 따르면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정치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은 선한 동기나 도덕적 순결성을 강조하는 심정윤리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책임윤리라고 한다. 즉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다고 해도 그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직결되지 않는 것이 정치의 세계이므로, 행위자는 의도에 연연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 올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아무리 그것이 고상해도)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악마’, 다시 말해 선이 항상 선만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온갖 ‘윤리적 역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세계라면, 행위자는 그러한 세계에서 의도나 동기보다는 책임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베버의 문제의식이 갖는 참신함은, 행위자가 ‘책임윤리’라는 의미에서 양자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심정윤리’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진정한 행위자라면 이 두 윤리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요컨대 행위자에게 필요한 것은 심정윤리적인 책임윤리라고 할 수 있다.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심정윤

25) ‘평화파괴적 현실 논리’와 ‘평화옹호적인 이상논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최치원, “근대에 대한 하나의 사변 - 동북아 평화문제의 의제화를 위한 시론”, 『철학연구』제 31집, 2006, 263쪽 이하 참조.

26) 이하의 논의에 관해서는 Max Weber, “Politik als Beruf”,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Johannes Winckelmann (Hrsg.), J.C.B. Mohr: Tübingen, 1988(1922), 505-560쪽 참조.

리적인 책임윤리를 가진 행위자가 필요하다. 책임윤리와 상호보완될 수 있는 심정윤리라는 의미에서 평화에 대한 행위자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철학이 없다면, 베버가 말했듯이 맹목적인 권력의 허상(Schein der Macht)만을 쫓는 행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장벽은 60년 대 초 이후에 동서간의 긴장 완화정책을 (마치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안목’을 가지고 딱딱한 널빤지에 시간을 들여 힘차게 구멍을 내듯) 일관되게 추진했던 행위자들의 책임의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더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심정윤리적 책임윤리를 가진 행위자의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가 서독의 대동독 정책을 통일정책에서 평화공존의 정책으로 바꾸어 놓은 데 중요한 기여를 한 브란트(Billy Brandt)이다. 그는 ‘조그만 발걸음 정치(Politik der kleinen Schritte)’를 제안하였다. 독일의 화합은 조그만 협약이나 조약을 통해 동서독 간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브란트의 동료인 바(Egon Bahr)는 튕징에서 행한 1963년의 연설(Tutzinger Rede)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즉 공산주의는 제거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는 서독과 동독의 경제협력을 제안하였다. 소위 말하는 새로운 동방정책(Ostpolitik), 즉 평화의 정치가 브란트 수상과 쉐엘(Walter Scheel) 외무부 장관 하에서 1969년에 시작되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1989년까지 시점까지 전개되었다.²⁷⁾

소련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쵸프(Michael S. Gorbatschow) 역

27)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전에 독일은 기민당(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의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수상 하에 주도되었던 ‘서방화를 통한 독일문제해결’을 추구하였다. 베를린 장벽이후 이루어진 독일통일을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라는 의미에서) 기민당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서방화를 통한 통일(Die Wiedervereinigung durch die Westintegration)’의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권오중, “국가적 통일인가, 서방측으로의 통합인가? - 독일 연방공화국(구 서독)의 정부수립과 아데나워 정부의 독일정책결정에 관한 문제”, 『역사교육』제 91집, 1991, 217-247쪽 참조.

시 심정윤리적인 책임윤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행위자이다. 그는 소련과 세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냉전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그는 ‘후퇴는 없다(Es gibt kein Zurück)’라는 글에서 “개방, 자유로운 창작, 제한받지 않은 토론,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연구, 비판과 자기비판과 같은 새로운 사회정치적 분위기”²⁸⁾가 필요하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고르바췌프의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은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 고르바췌프는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국가들이 소비엣 진영으로부터 독립하여 민주주의 국가로 향해 나가려고 해도 과거에서처럼 무력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 보다 1년 전, 그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정치인들에게 인류의 생존, 핵무기, 군사적 대결, 전쟁 그리고 세계 속의 유럽의 역할 문제에 관해 “새로운 사고”를 가질 것을 호소하였다. 요컨대 새로운 사고를 기반으로 “유럽 공동의 집”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²⁹⁾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정윤리적 책임윤리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평화에 대한 비전과 그것의 실현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에 국한시켜 본다면, 통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무시한 심정윤리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서 제기되었던 북진통일, 승공통일 그리고 멸공통일의 주장, 그리고 북한에 의해 제기되었던 적화통일의 주장은 단지 통일이라는 고결하고도 순수한 동기만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통일 지상주의자들이 고수하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28) Michael S. Gorbatschow, “Es gibt kein Zurück”, *Es gibt keine Alternative zu Perestroika: Glasnost Demokratie Sozialismus*, Juri Afanassjew (Hrsg.), Greno Verlagsgesellschaft: Nördlingen, 1988, 9쪽.

29) Michael S. Gorbatschow, “Die Idee vom gemeinsamen Haus Europa”, *Glasnost. Das neue Denken*, Hamburg: Ullstein, 1999(1987), 179-189쪽 참조. 그의 책임윤리적 사고는 그가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속하냐 아니면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하냐의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독일의 중립화도 혹은 양 기구에 동시가입도 아닌) 나토의 가입을 승인한 결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는 궁극적으로 전쟁도 불사해야한다는 논리는 일견 고상해 보이지만, 여기에 전적으로 결여된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³⁰⁾ 이러한 논리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도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통합과 유럽의 통합에 관해 확고한 평화의 비전을 제시한 고르바초프의 생각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새로운 사고의 빛 속에서 우리는 유럽 공동의 집이라는 생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환상의 구성물이 아니라, 대륙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분석의 결과물입니다. ‘공동의 집’ 개념은 무엇보다도 불가분성(Unteilbarkeit)을 - 비록 불가분성에서 중요한 것이 다양한 사회 시스템들 및 서로 적대적인 군사 정치적 진영들에 소속해 있는 국가들이긴 하지만 -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³¹⁾ 미래의 평화에 대한 생각은 이처럼 유토피아적인 것

30) 남북한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철학과 원칙은 비유하자면 예컨대 나란히 걷기(side-by-side) 개념 혹은 어깨 나란히 하기(shoulder-to-shoulder) 개념에 상응될 수 있다. 세계 속에서 그리고 동북아시아 속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간에 혼자서 걸어간다는 것은 어느 경우나 불안한 것이고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 나란히 걷는다는 것은 마치 피아노의 두 건반 중 하나만이 일방적으로 음을 만들어 내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남북한 어느 한 국가만이 독주(run alone)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혹은 ‘어깨 나란히 하기’ 개념이 지향하는 것은 상호간의 이익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과 지침과 연관된다.

31) Gorbatschow, 위의 글, 187 참조. 경제적·문화적 교류협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햇볕정책’은 심정윤리적 책임윤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한다. 1998년 2월의 대통령취임식을 계기로 제안된 이 정책은 기존에 한국이 추구해왔던 대북정책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을 알리고 있었다. 그것의 핵심은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대북정책으로부터의 탈피에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북한에게 무조건 퍼주는 정책이며, 북한이 미사일 장사를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데에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에게 북한은 더 이상 어떤 협조나 화해를 구하지 못할 영원히 사악한 악마일 뿐이다. 또한 북한에게 햇볕정책은 ‘햇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남한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능동적 주체로 그리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수혜자의 이미지를 불러내었다. 북한은 햇볕정책이 일종의 흡수통일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항상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이것이 북한이 처음에 햇볕정책을 부패한 남한의 자본가체제로 사회주의 국가인 자신을

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각 국가들의 다양성과 서로에 대한 적대성 까지도 포용하는 유연한 사고이다.

벤야민은 “진보”라고 불리는 폭풍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깨워주고 “찢어진 자들”을 맞추어줄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래로 몰아간다고 근대를 비판하였다.³²⁾ 1945년 말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단 몇 개의 폭탄은 민간인, 군인 가릴 것 없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핵의 등장과 함께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전체 인류의 멸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아렌트(Hannah Arendt)가 정확히 보았듯이 그것은 ‘인간 조건(the human condition)’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서머빌(John Somerville)은 핵 시대에서 고대·중세·근대와 같은 시대 구분의 무의미성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원자력 이전의 시대와 원자력 시대를 구분해 말해야 할 것이다.”³⁴⁾

베를린 장벽은 국가 간 그리고 진영 간의 대립과 경쟁을 부추기고, 새로운 무기의 무한한 축적과 첨단화를 조장하였던 과거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핵이라는 파괴적 에너지가 등장하여 목적 없이 배회하면서 역사의 방향을 잘못 이끌었다. 그것은 베를린 장벽을 마주보고 있던 국가들의 행위를 추동했으며, 중국에는 “우주의 군사화”를 의미하는, 통칭 전략 방위 구상(Strategic Defence Initiative, SDI)으로 일컬어지는 “별들의 전쟁”을 슬금슬금(by stealth) 추진하게

흡수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던 이유였다. 책임의식을 가진 행위자라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원칙을 전개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2) Walter Benjamin,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Illumination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7, 255쪽.

33) Hannah Arendt,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Piper: München. 7. Auflage der Neuausgabe, Aus dem Amerikanischen, 1992(1960) 서론 참조.

34) John Somerville, *The Philosophy of Peace. With Introductory Letters by Albert Einstein and Thomas Mann*, Liberty: New York, 1954(1949), 13쪽.

하였다. 별들의 전쟁은 “정치인의 비전의 산물이기보다는 인류의 고약함(perversity)을 비꼬는 풍자가의 산물”이었다.³⁵⁾ 장벽이 붕괴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위자들의 비전과 책임 의식만이 목적을 상실한 역사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점은 아닐까한다.

IV. 자유의 문제

베를린 장벽의 붕괴과정에서는 천안문 사태에서 보였듯이 중국식 유험책이 수반되지 않았고,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하의 독일 통일과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근대를 전형적으로 특징짓고 있는 어떠한 국가폭력도 수반되지 않았다. 독일이 공식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된 뒤의 초기 국면에 벌어졌던 비극적인 상황도 재발되지 않았다. 1953년 여름에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로 자부하는 동독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생활수준의 정상화와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자유와 자신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 국가에 저항했다. 시위대들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문을 통해 서독 지역으로 행진해 갔다. 동독정부는 이 봉기를 ‘파시스트적인 쿠데타 기도’ 혹은 ‘외부로부터 획책된 반혁명적 모반’으로 규정했다. 소련 주둔군이 이 행진을 막았다. 소련 탱크들이 시위자들을 향해 발포했고, 죽음과 부상이 뒤따랐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 과정을 일관되게 관통한 것은 폭력과 피의 법칙이 아니라, 자유의 이념이었다. 권력의 유지가 “장벽에 갇힌 동독 인민의 자유를 희생”으로 성립되었다면³⁶⁾,

35) Edward P., Thompson, “Why is Star Wars”. *Star Wars: Science-fiction Fantasy or Serious Possibility?*, Edward P., Thompson, (ed.), Pantheon Books: New York, 1985, 9쪽 이하.

36) “Die PDS hat sich vom Stalinismus der SED unwiderruflich befreit - Erklärung des Parteivorstandes der PDS zum 13. August 2001”(13. Juli 2001), 앞의 글 5쪽.

이제 이 자유는 권력을 평화롭게 무너뜨리는 원천이 되었다. 자유는 어떤 국가도 “시민이 그 국가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데, 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³⁷⁾는 간명한 원리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무엇보다도 조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그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양도 불가능한 인간권리들에 역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⁸⁾

독일의 신헌법의 전문은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자기결정 속에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동독과 서독의 통합이 목적으로 했던 ‘공통의 통화, 경제 그리고 사회에 기초한 연방’, 즉 자유의 정치 공동체의 창립은 이제 독일이라는 하나의 단일 국가의 틀을 뛰어넘어 유럽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모습으로 실현되어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되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과 유럽을 새롭게 만드는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독일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유럽을 만드는 문제였다. 아마도 유럽인들은 독일인들이 독일 통일의 날에 선언한 것처럼 그렇게 ‘유럽인들은 자유로운 자기결정 속에서 유럽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라고 언젠가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의 갈망 그리고 자유 자체가 거주할 새로운 집(Stätte)를 창설하려는 갈망”³⁹⁾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독일과 유럽에서 실현이 되어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오늘날 우리의 ‘갈망’은 어디에 있으며, 과연 ‘새로운 집’은 언제 지어질 수 있을까?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 보듯 실천적 인간의 행위의 의미가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상황은 “혁명의 목표는 자유”이며, 자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이며, 자유의 탄생은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Geschichte)의 시

37) 위의 글, 5쪽.

38) 자유의 이념은 1990년 5월에 에 있는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 기간 동안에도 실현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동·서독 간에 ‘공통의 통화, 경제 그리고 사회에 기초한 연방을 만들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고, 10월 3일 공식적인 통일의 날(Tag der Deutschen Einheit)이 선포되었다.

39) Hannah Arendt, *Über die Revolution*, Piper: München, 3. Aufl., Aus dem Amerikanischen, 1986(1963), 42쪽.

작’을 의미한다고⁴⁰) 주장했던 콩도르세(Antoine Nicolas de Condorcet)와 프랑스의 혁명가들을 상기시킨다. 1789년이 봉건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다면, 1989년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동독에서는 80년대 초 이래 국가보안국(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혹은 통칭 슈타지(Stasi)로 불리는 국가기구의 탄압에 맞서 평화 및 환경 그리고 여성운동 등을 포괄하는 각종의 저항운동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대부분 반공개적인 형태를 띠었다) 전개되고 있었다.⁴¹) 이러한 저항운동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작’ 혹은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의미하는 자유의 탄생의 씨가 뿌려졌고, 그것은 립크네히트-룩셈부르크-데모(Liebke-Necht-Luxemburg-Demo), 지방선거 감시단 조직 및 선거조작에 대한 항의 운동, 그리고 중국의 천안문 학살에 대한 항의 운동 등과 같은 행위 속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장벽이 붕괴되기 바로 이전 시점에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데모크라티 옛츠트(Demokratie Jetzt), 데모크라트.아우프브루흐(Demokrat. Aufbruch) 등과 같은 공식적 조직들이 출범되면서 동독 정부에 대한 저항이 체계화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는 동독정부에 맞서면서 (구소련이 펼친 개혁·개방정책의 파고 속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유를 실현을 위한 노력이 최절정에 다다른 순간은 1989년 10월이었다.⁴²) 동독 정부가 국가건립 4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시점에, 시민들은 사상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권리, 공개적 정치적 토론 권리, 자유로운 여행의 권리,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동독 시민들의 행위가 보여주었던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

40) Arendt, 위의 책, 10, 37, 184쪽.

41) 이에 관해서는 Ehrhard Neubert,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1949-1989*, Links: Berlin, 1998, 2. Aufl. 참조.

42) 1989년 10월에 헝가리 정부가 동독의 난민을 위해 국경을 개방하였다. 수천 명의 동독시민들이 자유를 찾아 헝가리 소재 서독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도 동독으로부터의 난민들을 위해 국경을 개방했다.

유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이다. 라이프찌히(Leipzig)를 포함한 동독 여러 도시에서 ‘우리는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모토 하에서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자유선거, 자유로운 여행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 하의 비극적 독일 역사가 보여주지만, 유럽인들에게 독일의 ‘국민’ 혹은 ‘민족’은 이민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테러 그리고 억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화해와 통합의 이미지로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독일 ‘국민’은 구동독의 일당 사회주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가져온 자유의 힘이었다.

자유가 갖는 경이로움은 아렌트의 용어로 표현하면 ‘시작할 수 있음’⁴³⁾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자유의 경이로움이 나타났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인간 스스로가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특정의 역사적 조건과 상황 하에서 만들어 간다⁴⁴⁾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적 상황에서 인간 행위의 기반이 되기도 했고 제약이 되기도 했던 역사적 조건은 동독과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존재였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이끌어 낸 인간의 자유 행위는 국가가 결코 인간의 행위와 판단의 기준은 될 수는 없으며, 국가라는 존재는 역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무엇보다 양도 불가능한 인간의 권리들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대량학살과 대규모의 인권유린을 자행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 실현의 행위를 통해서 소멸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이러한 생각은 Hannah Arendt의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Piper: München. 7. Auflage der Neuauflage. Aus dem Amerikanischen, 1992(1960)와 *Über die Revolution*. Piper: München. 3. Aufl. Aus dem Amerikanischen (1986(1963)에 나타난 핵심적인 철학적 이념이다.

44) Karl Marx · Friedrich Engels, *Marx Engels Werke (MEW)* Bd. 8, Dietz: Berlin, 1960, 115쪽.

V. 맺는 말: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함의

본 글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철학적 성찰과 역사적 반성의 입장에서 평화와 윤리 그리고 자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보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와 윤리의 문제를 그리고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평화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였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로서 세계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북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틀을 찾아보게 하는 계기였다. 무엇보다 그것은 서로 대립하고 갈라섰던 인간과 국가를 화해시켰고, 미래의 평화에 대한 시각을 열어 놓음으로서 인류보편적인 가치들의 탐구와 그러한 가치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행위양식 및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현재 진통 속에서도 계속 완성을 향해 진행 중에 있는 유럽통합의 과정의 예에서 볼 수 있지만, 보편적 세계시민의식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민족국가 단위의 정치, 경제,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우리에게도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및 질병 문제 등에 초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아시아에서는 ASEAN+3(한중일) 혹은 ASEAN+4(한중일북한) 체제에 기초한 하나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전개된 적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혹은 한중일 3국과 ASEAN 10개국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경제협력기구의 창설도 논의된 적이 있다. 이 모든 시도들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하나의 지구촌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듯하다. 동북아시아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조그만 지구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장벽의 붕괴와 이후에 진행된 독일 통일과 유럽의 통합과정 그리고 이와 관계된 각종의 이념과 실천적 행위 및 객관적 요인 등은 아직도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의 관계와 과거의 역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오늘날의 동북아시아

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보이고 다양성과 개방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민의식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직 국가중심적인 폐쇄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침략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일깨움으로써 자국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든지 혹은 자국과 타국을 각각 선과 악의 양분법적 논리로 범주화한다든지 혹은 타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김으로써 과거에 자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폭력 행위를 덮으려 하는 것과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애국주의적 이데올로기” 현상을 부르마(Ian Buruma)는 “뭔가 광적인 것(etwas irritierendes)”⁴⁵⁾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소위 말하는 ‘보통국가(normal state)’로 나아가려는 의도로부터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기회만 되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평화헌법은 ‘전쟁의 포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것의 목적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는 인권과 생명의 보존에 있다. 인권과 생명은 주변국들이 서로 공유하며 서로 간의 화합을 매개할 수 있는 근본가치이다. 평화헌법의 개정 시도는 이러한 매개를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강경파에 의해 끊임없이 주도되고 있는 각종의 호전적인 전쟁 시도 그리고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상황도 평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국은 천안문 학살사건에서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자국의 국민을 폭력 행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티베트와 위구르 같은 인접 소수민족국가들을 폭력으로 억누르고 교육의 주체로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각종의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냉전 시기인 1970년대 후반 이래의 개혁·개방을 통해 쌓아올린 막강한

45) Ian Buruma, “Nationalisten in Fernost. Der chinesische Haß auf Japan ist der Ausdruck der verpaßten Liberalisierung”, *Die Welt*. Don. 14. April, 2005.

=http://www.welt.de/print-welt/article653609/Nationalisten_in_Fernost.html.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중국의 책임을 역할을 강조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 peaceful rise)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노선은 그러나 중국이 자신의 경제적 영향력을 군사-정치적으로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나 탐원공정(探源工程) 등과 같은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의 완성을 꾀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주변약소국의 독립이나 자치요구에 대해 무력으로 대답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과거 독일이나 일본이 경험한 적이 있던) 권력국가(Machtstaat)로 부상하려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1987년을 계기로 성취되기 시작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깨트리려는 역사의식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평화 실현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에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던 양국 간의 관계는 현재에 답보상태 내지는 후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중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들에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⁴⁶⁾ 근대 국가에서 공안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된 고문과 살인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지를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경우에 아직 요원하다.

이 모든 문제들이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동북아시아의 자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제시되었을 때 유럽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서 하나의 동북아시아가 실현될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46) 북한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곤경에 처해있다. 북한 문제의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적도 아니고, 일방적인 수동적 수혜자도 아니며,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더불어 미래의 한반도 공동체 혹은 (유럽의 유럽연합처럼) 미래에 건립될 수도 있을 동북아시아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혹은 '어깨 나란히 하기' 개념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과 같은 주변국들에게도 해당되는 원칙이 될 수 있다.

칸트는 “영구평화(전체 국제법의 궁극적 목표)는 실행될 수 없는 하나의 이념”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향한 정치적 원칙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구평화로의 끊임없는 접근에 기여하는 [...] 그런 하나의 국가들 간의 결합을 도모하는 정치적 원칙들이 실행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이런 부단한 접근이 인간과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에 기초한 사명인 한, 정치적 원칙들은 실행될 수 있다.”⁴⁷⁾ 요컨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원칙들’은 실행될 수 있다.

칸트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속에서 찾아야 할 원칙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들은 어쩌면 본 논의가 다루었던 평화, 윤리 그리고 자유의 문제 말고도 다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철학과 역사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무궁무진한 반성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점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한 순간이나마 ‘혼돈’과 ‘오류’로 가득한 ‘근대의 프로젝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완성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완성’의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듯하다. 즉 근대는 자신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라 볼 수 있다.⁴⁸⁾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흠즈봄이 표현했듯이 그것은 소비엣 시대의 종말과 함께 찾아온 “해체, 불확실성 그리고 위기의 새로운 시대”⁴⁹⁾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는 어쩌면 소비엣 시대의 종말과 함께 찾아 온 것이라기보다는 기든스가 이미 근대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했던 불확실성과 회의 그리고 공포의 시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지점일 수도 있다.⁵⁰⁾ 우리에게 무엇보다

47) Immanuel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Werke in zwölf Bänden, Band 8), Suhrkamp: Frankfurt am Main, 1977, § 61.

48) 근대를 하나의 미완의 프로젝트로 보는 입장은 Jürgen Habermas, “Die Moderne - ein unvollendetes Projekt”, *Kleine Politische Schriften I-IV*, Suhrkamp: Frankfurt am Main, 1981, 451쪽 이하 참조.

49) Hobsbawm, 앞의 책, 8쪽.

50)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도 불확실성들에 대한 경험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듯이 행위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불확실성들 중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하다”⁵¹⁾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위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위기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것의 근원인 인문주의의 위기를 말해야 할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홉즈봄의 생각을 빌어 표현 했지만, 인문주의의 위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세계 건설에 대한 신념들과 가정들, 요컨대 비판적 사고와 그것을 가르치는 학문의 붕괴로 표현된다.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의 현실을 보아도 이러한 위기는 이미 현실이다.⁵²⁾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효율성과 업적이, 체제 비판이나 도전이 아니라 체제에 순응을 강요하는 논리가 인문학적 상상력을 죽이고 있다. 여기서 다시 베를린 장벽의 붕괴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빌리 브란트나 고르바초프의 확고한 심정윤리적 책임윤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이끌어 내었던 자유의 행위, 평화에 대한 이상 등이 과연 인문학적 상상력, 특히 철학적 소양이 없이도 가능이나 했을까?

Cambridge: Polity Press, 1991, 36쪽 이하.

51) Hobsbawm, 앞의 책, 11쪽.

52)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돈이 안 되는 쓸모없는 철학과를 없애버렸다. 취업 기술을 배우는 데 유용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학과들이 폐지되거나 타과에 통합되었다. 직원들의 관료주의가 대학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재벌화된 거대언론이 주도하는 대학평가 기준에 맞추어 학자들에게 영어 논문을 만들어 내기를 요구하고 있다. 영어 논문은 임용과 진급의 유용하고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 대학관료주의와 언론재벌의 지배 하에서 학자들은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고민하기 보다는 영어 논문 한편을 만들어 내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기업식 논리를 들이대어 국내최고의 경영학부를 만들겠다는 (그리고 2018년까지 세계 100대 명문대의 진입을 실현시키겠다는),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대학교의 논리에서 인문주의의 위기는 한국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안락한 경제적 위안을 받으며 논문을 적어낼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형 지식인들이 양산되고 있다.

투 고 일: 2010. 06. 01.
심사완료일: 2010. 06. 30.
게재확정일: 2010. 07. 02.

최치원
고려대학교

참고문헌

- 권오중. 2004. “국가적 통일인가, 서방측으로의 통합인가? - 독일 연방공화국(구 서독)의 정부수립과 아데나워 정부의 독일정책결정에 관한 문제”. 『역사교육』제 91집.
- 권터 그라스. 1991. “조국을 모르는 어떤 녀석의 짧은 연설”. 프리데만 슈피커/ 임정택(공편). 『논쟁. 독일통일의 과정과 결과』.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경식. 2002. “독일통일과 민족문제를 보는 몇 가지 시각”. 『역사비평』.
- 김누리. 1993. “통일독일의 문학논쟁”. 『창작과 비평』.
- _____. 2008. “동독의 귀환-통일이후의 독일의 가치관 변화”. 『괴테연구』 21집.
- 노대명. 1999. “‘제 3의 길’과 ‘세기말’ 좌파”. 『진보평론』 2호. 겨울.
- 레지 드브레. 2002. 『지식인의 종말』. 강주언 역. 서울: 예문.
- 막스 갈로 외. 1997. 『진보는 죽은 사상인가』. 홍세화 역. 서울: 당대.
- 백경남. 1991.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서울: 강천.
- 서병철. “독일 통일의 의미”. 『한독사회과학논총』. 창간호. 1991.
- 신희영. 2002. “현대복지국가의 도전과 제 3의 길 -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1권 2호.
- 안성찬. 2004. “동독과 서독의 과거청산을 통해 본 통일독일의 문화사적 정체성”. 『독일언어문학』26집.
- _____. 2009. “독일통일과 지식인의 위기”. 『독일언어문학』43집.
- 이기식. 1994. “독일통일과 좌파지식인의 몰락”, 『창작과비평』.
- 채장수. 2002. “‘제 3의 길’에서 평등의 의미”, 『한국정치학회보』제 36집 4호.
- 최치원. 2003. “유럽의 신보수주의? - 그렇다면 샤토브리앙(Francois Rene Vicomte de Chateaubrinand)과 프랑스의 미네르마(Minerve francaise)는 이제 어디에?”. 『시대정신』2호. 서울: 교

양사회.

_____. 2004. “사회주의와 유럽의 근대와의 결합시도”, 『시대의 논리』5호. 서울: 교양사회.

_____. 2006. “근대에 대한 하나의 사변 - 동북아 평화문제의 의제화를 위한 시론”, 『철학연구』제 31집. 고려대 철학연구소.

Arendt, Hannah. 1992(1960).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Piper: München. 7. Auflage der Neuauflage. Aus dem Amerikanischen.

_____. 1986(1963). *Über die Revolution*. Piper: München. 3. Aufl. Aus dem Amerikanischen.

Bahr, Egon. 1984. “Wandel durch Annäherung” (Rede gehalten am 15. Juli 1963 in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Lesebuch zur Deutschen Geschichte. Bd 3. Vom deutschen Reich bis zur Gegenwart*. Bernhard Pollmann (Hrsg.). Dortmund.

= http://www.fes.de/archiv/adsd_neu/inhalt/stichwort/tutzing_rede.pdf.

Benjamin, Walter. 1997.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Illumination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Buruma, Ian. 2005. “Nationalisten in Fernost. Der chinesische Haß auf Japan ist der Ausdruck der verpaßten Liberalisierung.” *Die Welt*. Don. 14. April.

=http://www.welt.de/print-welt/article653609/Nationalisten_in_Fernost.html.

“Die PDS hat sich vom Stalinismus der SED unwiderruflich befreit - Erklärung des Parteivorstandes der PDS zum 13. August 2001”(13. Juli 2001), *Handout zur Geschichte: Aus Dokumenten der Linkspartei. PDS*

=http://die-linke.de/fileadmin/download/geschichte/090312_handr

eichung_geschichte.pdf

- Fukuyama, Francis. Summer, 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 Giddens, Anthony.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Polity: Cambridge.
- Gorbatschow, Michael S. 1987/ 1989. "Die Idee vom gemeinsamen Haus Europa." *Glasnost. Das neue Denken*. Hamburg: Ullstein.
- _____. 1988. "Es gibt kein Zurück". *Es gibt keine Alternative zu Perestroika: Glasnost Demokratie Sozialismus*. Juri Afanassjew (Hrsg.). Greno Verlagsgesellschaft: Nördlingen.
- Habermas, Jürgen. 1981. "Die Moderne - ein unvollendetes Projekt". *Kleine Politische Schriften I-IV*. Suhrkamp: Frankfurt am Main.
- Hobsbawm, Eric. 1994/1997.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7*. Abacus: London.
-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3.
- Immanuel Kant. 1977. *Die Metaphysik der Sitten*. Werke in zwölf Bänden. Band 8. Suhrkamp: Frankfurt am Main.
- Knabe, Hubertus. 2004. *17. Juni 1953. Ein deutscher Aufstand*. Ullstein Taschenbuch Verlag: München.
- Kowalczyk, Ilko-Sascha. 2003. *17. Juni 1953. Volksaufstand in der DDR. Ursachen-Abläufe-Folgen*. Edition Temmen: Bremen 2003.
- Landes, David. 1973/1983. *Der entfesselte Prometheus. Technologischer Wandel und industrielle Entwicklung in Westeuropa von 1750 bis zur Gegenwart*. dtv: München. Aus dem Englischen.
- Mählert, Ulrich (Hrsg.). 2003. *Der 17. Juni 1953. Ein Aufstand für*

- Einheit, Recht und Freiheit.* Verlag J.H.W: Bonn.
- Marx, Karl · Engels, Friedrich. 1960. *Marx Engels Werke (MEW)*
Bd. 8. Dietz: Berlin.
- Neubert, Ehrhard. 1998.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1949-1989.* Links: Berlin. 2. Aufl.
- Meuschel, Sigrid. 1993. *Legitimation und Herrschaft der DDR.*
Suhrkamp: Frankfurt am Main. 3. Aufl.
- Reimann, Aribert. 2004. “Der Erste Weltkrieg-Urkatastrophe oder Katalysato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d. 29/30.
- Schroeder, Klaus. 2006.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Verlag Ernst Vögel: München/Stamsried.
- Selinger, Bernhard. 2007. “Overcoming Internal Division: The German Experience and the Prospects for Kore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8-2.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Somerville, John. 1949/1954. *The Philosophy of Peace. With Introductory Letters by Albert Einstein and Thomas Mann.* Liberty: New York.
- “Sozialismus entsteht in und aus der Gesellschaft - Erklärung des Parteivorstandes der PDS zum 50. Jahrestag des 17. Juni 1953” (26. Mai 2003), *Geschichte: Aus Dokumenten der Linkspartei. PDS.*
=http://die-linke.de/fileadmin/download/geschichte/090312_handreichung_geschichte.pdf.
- Thompson, Edward P. 1985. “Why is Star Wars?”. *Star Wars: Science-fiction Fantasy or Serious Possibility?.* Thompson, Edward P (ed). Pantheon Books: New York.
- Weber, Max. 1921/1988.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Johannes Winckelmann (Hrsg.). J.C.B. Mohr: Tübingen.

ABSTRACT

A Philosophical-Historical Reflection
on the Modernity
—In Search of the Meaning of 20 Years
After the Collapse of Berlin Wall—

Choi, Chi-Won

Modernity can be called, to use Eric Hobsbawm's term, an age of extreme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modernity are shown by the advent of fascism; the renovation of killing machines which guarantees a perfect performance of massacre; the evolution of the culture and politics of violence/terror; the ceaseless trampling up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and, especially, innumerable wars which culminated in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s. Thus, modernity for Jürgen Habermas is a project of confusions and fallacies which is, however, unfinished because perhaps there is still a hope for people to make the world better, more just and more viable. The fall of the Berliner Mauer (Berlin Wall) is a symbolic event in this respect. The series of historical events, from the bloodless revolution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the collapse and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started with the fall of the Berliner Mauer. After the long history of confusions and fallacies, Europe is now reborn as the European Union, a peaceful cosmopolitan community. The fall of the Berliner Mauer is the first instance that

shows that the modern project, even with its negative consequences, is nevertheless worthy of finishing.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seek a theoretical epistem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world and Northeast Asia as a sustainable future, by discussing the questions of peace, ethics and freedom 20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er Mauer.

Keywords: Modernity, Berlin Wall, Northeast Asia, German Reunification, Peace, Freedom, Ethics of Responsibility